

BILZARD
ENTERTAINMENT

OVERWATCH® 2

폭풍
추적자

SAM KING

HANNAH
TEMPLER





폭풍 추적자



수색구조팀장 프레야 그림힐트는 오버워치에,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오버워치의 사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버워치의 자원만 있다면 프레야가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없었고 구할 수 없는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버워치가 해산되었을 때, 프레야는 아무런 목적 없이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 .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전까지. 현상금 사냥꾼이 된 프레야는 다른 의뢰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글 **SAM KING** 그림 **HANNAH TEMPLER** 식자 **ANDWORLD DESIGN** 표지 **HANNAH TEMPLER**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 개발, 선임 디렉터 **VENECIA DURAN** 문학 및 도서, 선임 매니저 **MATTHEW COHAN**
편집 슈퍼바이저 **CHLOE FRABONI** 선임 브랜드 아티스트 **COREY PETERSCHMIDT** 제작
BRIANNE MESSINA,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VALERIE STONE, LAURA WOODWARD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NESSKAIN, DION ROGERS, MIRANDA MOYER**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만화는 픽션입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이름,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로 사용되었으며, (생사를 막론하고) 실제 인물과 사업체, 사건,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는 작가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그 내용물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이 없습니다.

오후 사태가 코펜하겐을 덮쳤을 때 나는 어린애였다.



폭풍



어머니는 외교관이셨다.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답을 요구했다.

수색구조대 연결해 주세요.



어머니는 폭풍의 눈 같은 분이셨다.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한결같은.

즉시 부상자 분류를 시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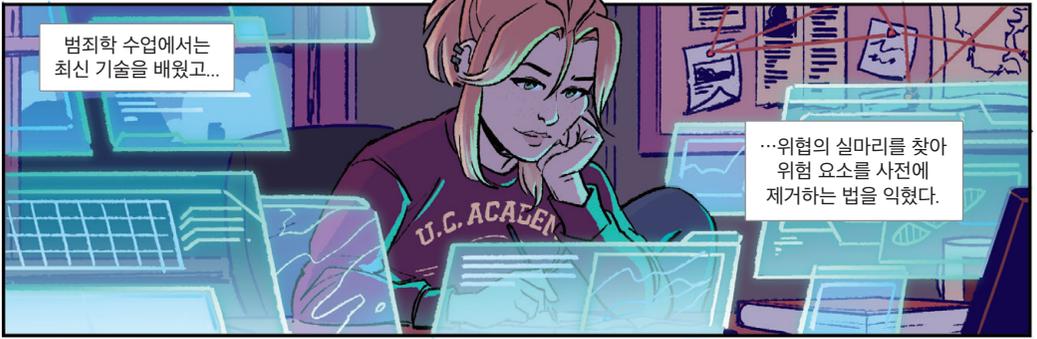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침착한 머리와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추가 의료 지원 배치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현장에 가고 싶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범죄학 수업에서는
최신 기술을 배웠고...

...위험의 실마리를 찾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법을 익혔다.



지역 수색구조팀에서는 더
많은 현장 교육을 제공했.

도와주세요!
도와줘!

나는 어디서든, 누구든
찾아낼 수 있는 전술과
전문성을 개발했다.



꺼내
드릴게요.

그리고 난 일을 끝까지 해낼 때의
짜릿함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일을 한다는 보람도 함께.



여기다!

나는 그런 느낌을
쫓는 데 투신했다.



졸업 후, 군에서는
나를 스카우트하려
안달이 나 있었다.

네가 말하던
애가 이 친구야?
프레야?



하지만 나는 더 큰
고기를 노리고 있었다.

오버워치의 수색구조팀에서는 더욱
널리 내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조심해서
걸어.

정보에
따르면 바로 이 너머에
있을 거라던데...



오버워치의 자원만 있다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다.

이쪽엔 경비 10명.
3명 순찰 중.
인질은 7명.



우리 그룹은 타격팀만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뒤에서
일하는 편이 좋았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어.
자네같이 침착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으련만.

...최고의 실력자들과
일하는 걸로 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버워치가 무적이라 생각했다. 현실에 나타난 슈퍼히어로들이라고.

프레아가 민간인 대피를 담당한다. 엄호가 필요해.

대피가 완료되면 심해 무법자들과 교전을 시작한다.

나는 진실을 알았다...



조직의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는 진실을.

젠장할! 후퇴해!

수색구조팀 엄호해줘요! 아직 대피 안 끝났어요!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가 대피를 완료하기도 전에 레이스 팀이 도시에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14명을 잃었습니다. 프레아가 분투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떠난 이도 있었다.

이런 작전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지 않나, 사르올루. 수색구조팀도 이런 위험은 이해할 텐데.

하지만 나는 그저 내 일을 했다. 그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휘부에서는 그냥 버티라고만 했다.

나는 계속했고.

그럼에도 내부에서 불안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면,
사람들은 왜 자꾸
죽어가는 거야?!

난 오버워치를
믿었다.

블랙워치 기록을
공개하라!

당신네들
필요 없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저...
저희가 구해
드릴게요!

내 일에 너무도
집중하느라...

MORRISON

...모든 게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오버워치 스위스
본부가 파괴된 후 몇
달의 조사 기간 동안...

...지원팀의
성공과 노고...



...탐사 기지 프로그램, 의학 연구 그룹, 수색구조팀,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

오버워치의 대부분은
모든 걸 제대로 해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쁜 사람 몇 명의 행동이 세간에서
오버워치, 오버워치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의 평판을 망쳐 버렸다.



난 오버워치에 모든 걸
바쳤다. 기술. 열정. 인생을.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목적 없이 나는
방황했다.

절박하게.

그러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게도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프레야는 전직 오버워치
요원이었고, 그 이름에는
너무 많은 것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GEFN이
되었다.

처음에는 프레야가 할
만한 일을 받았다. 시민
구조, 범죄자 체포 등.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받을
때마다...

모든 수색이 구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다.

다크 웹에서 나는 까다로운
대상을 찾았다.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현상금 임무 같은.

대가보다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중요했다.

BOUNTY
COMPLETE
800000.00KR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흥분이
마침내 돌아왔고, 사냥의
스릴은 더욱 깊어졌다.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걸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스스로가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돕는 인생을 살고자 했다.

그러나 세상은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갔다.

띠링

이제...

...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